

여중생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안혜영¹ · 현혜진² · 최정명³ · 박승미⁴ · 이주현¹

울지대학교 간호대학¹, 강원대학교 간호대학²,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³, 호서대학교 간호학과⁴

Effects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on Depression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Hye Young Ahn¹ · Hye Jin Hyun² · Jeong Myung Choi³ · Seungmi Park⁴ · Joohyun Lee¹

¹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Suwon Science College, ⁴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oseo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on depression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n 217 first and second grade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C city.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home environment, level of depression, paternal, maternal, peer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were measured by self-reporting questionnaire. With SPSS 18.0 program, measured variabl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 post hoc 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higher among students with lower economic status, second in birth order, and second grade in school. The level of depress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paternal attachment ($r=-.522$), maternal attachment ($r=-.487$), peer attachment ($r=-.376$), relationship with teachers in school adjustment ($r=-.274$), relationship with friends in school adjustment ($r=-.378$), classroom behavior ($r=-.450$), school regulation ($r=-.267$). About 42% of depression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explained by paternal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friends in school adjustment, and classroom behavior. **Conclusion:** Paternal attachment was identified as the most influencing factor on depression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Encouraging paternal involvement in the process of school adjustment might be a useful intervention to decrease depression among middle school girls.

Key Words: Depression, Attachment, Female adolescents, Adjustmen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울은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 상태이다. 그 중 청소년은 가족 기능의 변화와 더불어 지나친 경쟁 중심의 사회

분위기 등 여러 가지 갈등적인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에 장애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발달과정으로 인해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이며, 따라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인지적 능력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태로 인해 청소년기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보다도 정서적 충동성이 심화되어 우울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할 위험이 많다

Corresponding author: Joohyun Lee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553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 461-250, Korea.
Tel: +82-31-740-7479, Fax: +82-31-740-7359, E-mail: leejoohyun@hanmail.net

투고일: 2014년 5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4년 11월 15일 /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3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Yoon & Lee, 2010). 기분이 울적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사춘기를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며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은 여러 가지 신체증상 및 극심한 무력증, 피로감, 권태감의 증상을 나타내고, 가출이나 자살, 비행 등과 같은 문제행동, 부적응 행동과도 연관되어 있어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Costello, Swendsen, Rose, & Dierker, 2008; Park et al., 2010; Shin, 2009). 실제로 한국보건 의료연구원(2012)의 자료에 의하면 15~18세 청소년 십만 명당 자살 인원은 8.2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 6.8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이후로 청소년 사망원인의 28%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이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은 실제 우울함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 데도 주위 사람들이 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청소년기에 보고되는 우울감은 주요 우울증으로 진단되기에는 증상이 미약하고 안정적으로 증상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인다(Moon, Oh, & Moon, 2002). 따라서 우울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빠지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되기 전에 우울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의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의 우울성향과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 아동의 우울증상은 아동이 경험하는 가족과의 다양한 상호작용 양상과 연관이 있으며(Messer & Gross, 1995; Park, Lee, & Moon, 2011), 특히 부모-자녀관계의 다양한 측면 중 애정이나 의사소통 등 정서적인 유대관계, 즉 애착관계가 아동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Choi, & Seo, 2000).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 수용적, 지지적일수록 아동에서 우울이 발생할 위험이 낮은 것이 보고된 바 있으며(Lee & Min, 2004), 특히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2003; Lee, 2006). 하지만 이러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 부모의 애착은 하나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부모와 모의 애착을 구별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로 인해 맞벌이 부모가 증가되고 있으며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Korean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2013).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전통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모의 애착뿐만 아니라 부의 애착관계 또한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 부모애착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 경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부모로부터의 심리사회적인 독립을 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고민 등 정서를 공유하고 사회적인 기술을 학습하며 사회적 유능감과 나아가 자존감을 얻게 된다(Hong & Doh, 2002).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적응 및 학업성적에 어려움을 보이고 우울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Park, 2008; Park, 2010) 따라서 또래애착 또한 청소년 우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수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므로 실제 학교에서의 적응 및 학업성취가 청소년의 우울과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2007; Park, 2010).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은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학교적응 등의 다수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의 특성 및 영향요인을 알기 위해 이러한 다수의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착을 부애착, 모애착으로 구분하여 또래 애착 및 학교적응과 함께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 우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 우울의 예방 및 증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중생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여중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우울, 부모애착,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우울, 부모애착,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중생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지역 1개 중학교 1~2학년 여학생 230명으로 자료수집은 2010년 6월 7일부터 21일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해당 학교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가 조사대상자의 담임선생님들께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다음 본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 설문 내용을 설명하여 대상자가 응답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조사의 전 과정에서 무기명을 유지하고 모든 개인적 자료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의 중단은 대상자가 결정할 수 있었으며 불성실한 답변자에게 답변을 강요하지 않았다. 수거된 설문 23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21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우울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ovacs와 Beck (1977)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Cho와 Lee (1990)에 의해 한국의 초등학교 고학년 288명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이 이루어진 한국판 소아우울 척도(CDI,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소아우울척도는 총 27개의 문항으로 7세부터 17세의 대상자에게 사용가능하며, 지난 2주일 동안의 자신을 잘 나타내주는 정도를 0, 1, 2점의 점수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평정치를 합산한 총점이 우울 정도를 나타내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부터 5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Kovacs와 Beck (1977)의 연구에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감안하여 11점에서 13점을 우울의 판단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Cho와 Lee (199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28이었다.

2) 부모애착

부모와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 McCauley, Greenberg, Burke과 Mitchell (1990)이 개발한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 척도 개정본(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가운데 부모에 대한 애착 척

도를 Lee (2005)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IPPA-R은 IPPA와는 달리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아버지 애착과 어머니 애착으로 분리하여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애착 문항 수는 총 25문항으로 IPPA-R은 원래 5점 Likert 척도이나 Lee (2005)의 연구에서 4점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25점에서 1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Lee (2005)의 연구에서 아버지 애착 Cronbach's α 는 .930, 어머니 애착 Cronbach's α 는 .92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아버지 애착 Cronbach's α 는 .904, 어머니 애착 Cronbach's α 는 .905였다.

3) 또래애착

또래와의 애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 (1987)이 개발하고, Kim (1995)이 번안하였으며, Lee (2005)에 의해 사용된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가운데 또래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또래에 대해 형성된 정서적 유대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긍정적 또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구체적으로 친구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에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지에 관해 묻는 문항 및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나의 판단을 믿어주며 친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주위에서 관심이 없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등을 묻는 문항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래 애착 문항은 총 25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총점의 범위는 25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Lee (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06이었다.

4)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척도는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Yoo (1995)에 의해 개발되고 Lee (2005)에 의해 사용된 것을 채택하였다. 본 도구는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및 학교규칙 4개의 하위 요인이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4점 Likert 척도이다. '교사관계' 요인은 교사와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도움을 청하려는 정도, 꾸중에 대한 반응, 긍정적 감정의 표현 적절성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우관계' 요인은 친구와의 조화로운 관계 정도, 학습 생활의 적극성 여부, 친구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수업태도’ 요인은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공부할 때의 어려움, 주어진 과제 해결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규칙’ 요인은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얼마만큼 통제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가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ee의 연구(2005)에서 Cronbach's α 는 교사관계가 .730, 교우관계가 .660, 수업태도는 .730, 학교규칙은 .70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교사관계가 .730, 교우관계가 .760, 수업태도는 .740, 학교규칙은 .710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부모애착,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은 t-test와 ANOVA로 비교하였으며 사후 분석으로 Scheffé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우울, 부모애착,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관계 계수로 분석하였다. 청소년 우울에 대한 제 변수의 영향 요인은 stepwise (단계적 선택)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51.6%, 2학년이 48.4%였고, 형제순위는 첫째가 54.4%로 가장 많았다. 가족의 수는 4명이 62.3%, 경제적 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0.4%로 가장 많았으며, 방을 혼자서 사용하는 경우가 7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아버지 63.7%, 어머니 58.7%로 가장 많았다 (Table 1).

2. 여중생의 우울, 부모애착,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

여중생의 우울 평균 점수는 13.31점이었다. 애착점수는 부애착이 68.99점, 모애착이 70.55점, 또래애착이 75.43점이었다. 학교생활적응 점수는 교사관계가 20.68점, 교우관계가 23.77점, 수업태도가 21.54점, 학교규칙 영역이 20.9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First	112 (51.6)
	Second	105 (48.4)
Birth order	First	118 (54.4)
	Second	91 (41.9)
	Above third	8 (3.7)
Number of family member (persons) †	2~3	35 (16.3)
	4	134 (62.3)
	≥ 5	46 (21.4)
Economic status †	High	47 (23.6)
	Middle	140 (70.4)
	Low	12 (6.0)
Room share	No	173 (79.7)
	Yes with sibling(s)	42 (19.4)
	Yes with parents	2 (0.9)
Level of paternal education †	≤ High school	40 (18.9)
	College or university	135 (63.7)
	Graduate school	37 (17.4)
Level of maternal education †	≤ High school	69 (32.4)
	College or university	125 (58.7)
	Graduate school	19 (8.9)

† Missing values are excluded.

Table 2. Level of Depression,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of the Participants (N=217)

Variables	M±SD
Depression	13.31±6.51
Paternal attachment	68.99±12.15
Maternal attachment	70.50±11.72
Peer attachment	75.43±10.31
School adjustment-relationship with teacher	20.68±3.08
School adjustment-relationship with friends	23.77±4.81
School adjustment-classroom behavior	21.54±3.69
School adjustment-school regulations	20.91±3.44

3. 여중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여중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가족의 수, 방의 공유,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우울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년, 출생순위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 우울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14.4±6.23점) 1학년보다(12.3±6.61점)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2.431, p=$

.016), 출생순위에서는 둘째가(14.7±6.38점) 첫째보다(12.4±6.43점)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F=3.670, p=.027). 또한, 경제적 수준이 ‘하’인 군이(19.3±8.11점) 경제적 수준이 ‘상’인 군(12.7±6.52점) 또는 ‘중’인 군보다(13.1±6.28점)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357, p=.005) <Table 3>.

4. 여중생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 우울과의 상관관계

여중생의 우울은 부애착(r=-.522), 모애착(r=-.487), 또래애착(r=-.376),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r=-.274),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r=-.378), 학교생활적응-수업태도(r=-.450), 학교생활적응-학교규칙(r=-.267)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5. 여중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중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울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중 우울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인 학년, 출생순위, 경제적 수준과 함께 부애착, 모애착,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stepwise (단계적 선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여중생의 우울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애착(β=-.207, p<.001),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β=-.159, p<.001), 학교생활적응-수업태도(β=-.044, p=.001)의 세 변수가 선택되었으며 이들 세 변수는 여중생의 우울 총 변인의 4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여중생의 우울 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부애착으로 총 우울 변인의 2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과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 정도를 보면 평균 13.31점으로 Park (2000)의 연구에서 여자 중학생 12.86점, 남자 중학생 14.26점 및 Park (2006)의 연구에서 남자 중학생 12.68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점수는 또한 Bae (2014)의 연구에서 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15.62점, Cho와 Lee (1990)

Table 3. Level of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Level of depression		
			M±SD	t or F (p)	Scheffé
Grade	First	112	12.3±6.61	-2.431 (.016)	
	Second	105	14.4±6.23		
Birth order	First ^a	118	12.4±6.43	3.670 (.027)	a < b
	Second ^b	91	14.7±6.38		
	≥ Third	8	11.3±6.88		
Number of family members † (person)	2~3	35	11.6±7.18	1.475 (.231)	
	4	134	13.7±6.15		
	> 5	46	13.5±7.04		
Economic status †	High ^a	47	12.7±6.52	5.357 (.005)	a, b < c
	Middle ^b	140	13.1±6.28		
	Low ^c	12	19.3±8.11		
Room share	No	173	13.6±6.47	1.111 (.268)	
	Yes	44	12.3±6.62		
Level of paternal education †	≤ High school	40	14.1±6.36	0.480 (.619)	
	College or university	135	13.3±6.66		
	Graduate school	37	12.6±6.36		
Level of maternal education †	≤ High school	69	14.8±6.76	2.538 (.081)	
	College or university	125	12.8±6.36		
	Graduate school	19	12.1±6.45		

† Missing values are excluded.

Table 4.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ttachment, and School Adaptation

(N=217)

Variables	1	2	3	4	School adjustment				
					A	B	C	D	
1. Depression	1								
2. Paternal attachment	-.522**	1							
3. Maternal attachment	-.487**	.821**	1						
4. Peer attachment	-.376**	.305**	.264**	1					
School adjustment	A. Relationship with teachers	-.274**	.330**	.343**	.159*	1			
	B. Relationship with friends	-.378**	.162*	.170*	.583**	.079	1		
	C. Classroom behavior	-.450**	.408**	.400**	.302**	.428**	.214**	1	
	D. School regulations	-.267**	.322**	.347**	.079	.352**	-.090	.385**	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Stepwise Multiple Liner Regression o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N=217)

Variables	β	t	p
Paternal attachment	-.207	-6.164	< .001
School adjustment-relationship with friends	-.159	-4.499	< .001
School adjustment-classroom behavior	-.044	-3.457	.001
Adj. R ² = .416			

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15.36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 경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 모애착 및 부애착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각각 75.43점, 70.55점 및 68.99점인 것에 비해, Lee (2005)의 연구에서는 각각 79.75점, 72.50점 및 69.75점이었고, Lee (2006)의 연구에서 또래애착이 77.10점, 모애착이 75.98점이었으며, Cho (2006)의 연구에서 또래애착이 77.10점인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또래애착, 모애착, 부애착의 정도가 다소 낮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또래애착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모애착, 부애착의 순서로 애착관계를 보이는 것은 기존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여자 중학생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여자 중학생이 남녀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비해 또래애착, 모애착 및 부애착의 정도가 낮으나 각 애착의 순위는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 점수는 본 연구에서 교우관계 23.77점, 수업태도 21.54점, 학교규칙 20.91점, 교사관계 20.68점이었으며, 이는 Lee (2005)의 연구에서 교우관계 23.52점, 수업태도 20.80점, 학교규칙 21.20점, 교사관계 20.60점과 점수와 순서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 부애착, 모애착 모두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나 부모와의 애

착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및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Cho, 2006; Park, 2008).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청소년기 우울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제시된 바 있으며(Koback & Screery, 1988), 또래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자신의 특성과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게 되며,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Cho, 2006).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이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이후의 또래관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다른 연구결과들과도 일치된 결과이다(Lee, 2006; Park, 2008). 따라서 청소년기 또래집단의 애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바, 심리적 부적응 상태인 우울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또래관계 향상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적응과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의 영역에서 학교생활적응이 잘 될수록 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 (2000)의 연구에서 우울성향이 높을수록 교우관계에

서 갈등을 더 높게 느끼고, 교사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교과 성적이 더 낮았다는 것과 일치한다. 즉, 우울한 학생일수록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며 학업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저하되어 학습목표에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우울한 학생들은 수업장면이나 교우관계 및 교사에 대한 태도에서 고립될 것이고 결국은 학교생활에 부적응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장애 및 일반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2006)의 연구에서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은 우울과 학교생활적응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일반학생의 경우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의 관계에서도 또래애착과 학교규칙만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청소년기 발달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Lee (2007)의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들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Chae (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았으며, 특히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믿어주며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잘 수용한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여중생의 우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애착으로 우울의 28.1%를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 9.7%, 학교생활적응(수업태도) 3.8%로 세 변인이 여중생의 우울 총 변인의 4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im (2009) 등과 Park (2010)의 연구에서 여자 고등학생들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모애착이 유의하게 높고 우울 또한 유의하게 낮은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학교적응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애착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Lee (200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고등학생과 중학생에서 부모애착관계의 변화양상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중생의 부애착, 모애착,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적응이 잘 될수록 우울 점수가 낮았으며, 우울에 가장 영향하는 요인은 부애착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요인들 간의 관계 및 관계의 방향, 그리고 직접적, 간접적 영향요인을 포함한 통합적 시각에서의 구조적 관계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 및 여중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1개 중학교 1, 2학년 21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0년 6월 7일부터 21일에 걸쳐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t-test와 ANOVA, Pearson 상관관계 및 stepwise (단계적 선택)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중생의 우울 평균 점수는 13.31이었으며, 애착점수는 또래애착이 75.43점, 모애착이 70.55점, 부애착이 68.99점이었다. 학교생활적응 점수는 교우관계가 23.77점, 수업태도가 21.54점, 학교규칙 영역이 20.91점, 교사관계가 20.68점으로 나타났다. 여중생의 우울은 부애착($r=-.522$), 모애착($r=-.487$), 또래애착($r=-.376$), 학교생활적응의 교사관계($r=-.274$), 교우관계($r=-.378$), 수업태도($r=-.450$) 및 학교규칙($r=-.267$)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Stepwise (단계적 선택) 다중회귀분석결과 여중생의 우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애착으로 28.1%를 설명하였으며, 그 다음은 학교생활적응(교우관계)까지의 누적 설명력이 37.8%, 학교생활적응(수업태도)까지의 누적 설명력이 41.6%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발달에서 중요한 변인인 우울과 여러 관련 요인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여중생 우울문제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단 본 연구는 대상자가 1개 중학교에 한정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여중생으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울, 부모애착 및 학교생활적응 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제시된 요인들의 단순한 상관관계에서 더 발전되어 요인들 간에 직, 간접 영향 및 선행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M., & Mitchell, J. R. (1990).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 logy, 18(6), 686-697.
- Bae, J. H. (2014). A study on cognitive distortion, depression, and school function for school-aged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2(2), 65-75.
- Chae, Y. Y. (2006). *Correl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ttachment,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Cho, H. J. (2006). *Peer attachment,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anxiety in adolescence: Focus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o, S. C., & Lee, Y. S. (1990). Development of the Korean form of the Kovac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4), 943-956.
- Costello, D. M., Swendsen, J., Rose, T. S., & Dierker, L. C. M. (2008).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trajectories of depressed mood from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2), 173-183.
- Hong, J., & Doh, H. (2002). Parental marital conflict,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5), 125-136.
- Kim, J. Y. (1995). *The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K. S., Jeon, Y. S., & Lee, C. W. (2009). The influence of attachment, 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n adolescent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7(1), 209-225.
- Koback, R. R., & Sr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3). *Annual report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Seoul: Author.
- Kovacs, M., & Beck, A. T. (1977). *An empirical-clinical approach toward a definition of childhood depression*. New York: Raven Press.
- Lee, E., Choi, T., & Seo, M. (2000). Effects of stress related to school, self-esteem,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parents' internal support of adolescent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2), 69-84.
- Lee, J. (2007). The influences of ego-identity and school adjust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4), 1593-1603.
- Lee, J. S. (2006). *The influence of mother and peer attach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K. (2003). The effects of attachment and depression on the adolescent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2(1), 1-13.
- Lee, S. H. (2005). *The relations between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school life adjustment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Y., & Min, H. Y. (2004). The effects of parental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on the depression of school aged childre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2(4), 1-10.
- Messer, S. C., & Gross, A. M. (1995). Childhood depression and family interaction: A naturalistic observation stud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1), 77-88.
- Moon, K., Oh, K. J., & Moon, H. S. (2002). Validation study of Korean children's automatic thought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4), 955-963.
- National Evidence-based Collaborating Agency. (2012). National evidence-based collaborating agency (NECA) round-table conference consensus statement: Multidisciplinary responses to suicide, the first ranked cause of death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56(2), 111-119.
- Park, A. G.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s' parental attachment and their depression & social anxiety: Testing of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self-resp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Park, E. (2000). *The relat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Park, E. M. (2010). Effects of adolescent's attachment to teachers · peers · mother, self-esteem, depression on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3(3), 75-88.
- Park, H. S., Noh, J. S., Bae, S. Y., Choi, M. S., Ko, D. S., & Park, J. (2010).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in Korean middle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3(1), 19-28.
- Park, J. S., Lee, M. S., & Moon, J. W. (2011). Effect of functional deficiency in family on self-esteem, depression, and suicidal inclina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4(2), 199-209.
- Park, W. (2006). *Depression and anxiety, and school adaptability of secondary students with and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Shin, H. (2009). The rel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academic-social-behavioral competence in children: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3), 73-98.
- Yoo, Y. H. (1994). *Relation analysis of school adjustment, anxiety and school achievement: Focused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Yoon, M. S., & Lee, J. K. (2010). A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 attachment on depression in early adolescenc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oong University*, 26(2), 69-92.